

東國 제일의 선원... 더위도 느릿느릿 쉬어간다

여름 계곡이 수려한 산사

① 양산 내원사

천성산 기슭에 위치한 내원사는 비구니 스님들이 수도하는 명찰이다. 절 아래 4km 정도 뻗은 계곡은 소금강이라 불릴 만큼 경치가 아름다워 도지정기념물로 돼 있다. 계곡마다 기암절벽과 3층 바위, 작은 폭포, 소빙풍바위가 둘러싸여 있다. 한여름에도 뱃속까지 시원 정도로 물이 차가워 피서객들의 발길이 넘쳐난다.

연못빛으로 물든 나뭇잎들 아래 바위 사이로 시원스레 흐르는 계곡물을 바라보는 즐거움도 여름철 내원사를 찾는 사람들에게 안겨진 선물이다.

내원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 15교구 통도사 말사로 신라 선덕여왕 15년(646)에 원효대사가 창건했다. 1898년 석담유성(石潭有性)선사가 설우(雪牛), 퇴운(退雲), 완해(玩海) 등과 더불어 수선사(修禪社)를 창건해 절 이름을 '내원사'로 개칭하고 동국제일선원이라 명명한 후 선찰로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다. 경허선사의 법제자인 혜월선사께서 조실로 주석하시면서 운봉, 향곡선사 등 한국 선종사의 선맥을 잇는 명안종사를 배출한 도량이기도 하다.

6·25전쟁으로 사원이 전소되자, 비구니 수옥 스님의 원력으로 10년만에 독립된 비구니 선원으로써 새롭게 중창되었다. 1958년의 일이다. 그 후 만공스님의 법제자인 법희, 선경스님 등 남자들의 정진처가 되었다. 1979년 도용스님을 입승으로 모시고 18명의 스님들이 모여 삼년결사를 시작한 이후 1999년 여섯 번째 회향을 하였고, 지금도 비구니 선객의 정진도량으로 선봉장이 되고 있다.

남아있는 문헌에 따르면 조선 인조대왕 24년 병술년에 의천대사가 중건하고, 현종대왕 12년 병오년에 용운화상이 3차 중건하고, 고종황제 13년 병자년에 영해화상이 4차 중건하였다고 되어있다. 1957년 2월 18일에 전후의 어려움 가운데에 중창불사를 시작하였고, 1959년 3월 29일에 선방인 선해일륜(禪海一輪·바다와 같이 크고 가늠할 수 없는 선의 세계가 끊임 없이 굴러가는 곳)을 낙성하고 동국제일선원을 개원하게 되었다.

기나긴 세월의 풍화작용속에 대둔사, 상종의 내원암과 89개의 암자는 조선종염종 이미 거의 다 폐허



천성산 기슭에 위치한 내원사는 신라 선덕여왕 15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비구니 명찰이다. 사진은 내원사 사찰 전경 모습.

가 되고 없었으니, 마침내 적당한 천년사지에 새로이 향화를 받드는 감회 어린 순간이었다. 수덕사 건성암에 이어 남방에서도 비구니들이 참선수행도록 그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그 후, 성우, 해운, 종현, 자광, 향업, 혜등스님 등이 차례로 주지를 역임하면서 옛 하내원인 지금의 내원사는 선나원, 정려현, 죽림원, 원화당, 간월당, 심우당, 산령각, 일주문 등 13동에 달하는 불사를 계속하여 비구니 선찰로서 사격을 갖추어 나갔다.

또한, 산내 암자로는 금강대, 금봉암, 노전암, 대성암, 미타암, 비로암, 성불암, 안적암, 원효암, 의성암, 조계암 등이 남아 있다. 특히 이곳엔 그 옛날 천명의 성인이 배출되었던 이 산중은 오늘날 부처님의 혜명을 잇고자 각고의 정진을 아끼지 않는 무수한 눈 푸른 남자들의 기드는 바가 되었으며, 신심이 깊은 불자들의 참배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창건설화를 살펴보면 송고승전(宋高僧傳)에 전해 지는데 당시 동래 척판암에 주석하시던 원효성사께서

신라 선덕여왕 15년 원효대사 창건 한국 선종사 선택잇는 명안종사 배출 1958년 수옥 스님이 새롭게 중창 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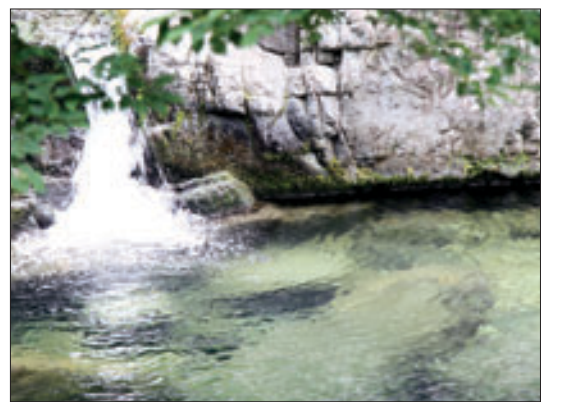
서 당나라 산서성 태화사에 수도하던 천명대중이 뒷산이 무너져 위급한 사고를 당할것을 미리 아시고 "해동원효 척판구중(海東元曉 拓板救衆)"이라고 판자에 써서 태화사 상공에 날아다니게 했다. 대중이 공중에 뜬 판을 보고 놀라 일주문 밖으로 나온 순간에 산사태가 나서 절은 무너져 버리고 대중은 모두 위기를 모면했다고 한다.

그 후, 구출된 천명의 대중은 도를 구하여 성사를 찾아왔으므로 성사는 그들을 데리고 머물 곳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중방리(지금의 용연리)를 지난 적에 원적산(圓寂山) 산신령이 마중 나와 "이 산에 천명이 득도할 곳이니 청컨대 이 곳으로 들어와 머무

소서" 하니 성사는 산신령이 인도하는 바를 따라 지금의 산령각 입구 까지 온 즉 원적산 산신령은 자취를 감추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산령각을 짓게되어서 유독 내원사 산령각은 큰절에서 5리 밖에 떨어져 있게 되었다.

성사께서 원쪽 계곡을 따라 들어와서 대둔사(大屯寺)를 창건하고 상, 중, 하 내원암과 아울러 89개의 암자를 창건하시어 천명의 대중을 머물러 수도케 하였다. 그리고 대중을 산 상봉에 모이게 하여 "화엄경"을 강설하였으므로 지금도 그곳을 화엄벌이라 하며, 988명이 이 산에서 득도하였고 나머지 12인중 8명은 팔공산(八公山)에서, 4명은 사불산(四佛山)으로 가서 도를 깨달았다하여 이후로 원적산을 천성산(千聖山)이라 부르게 되었다. 창건 후 고려시대의 사적은 전하는 바가 없다.

내원사는 고즈넉한 사찰도 아름답지만 천성산을 안고 흐르는 내원사 계곡은 소금강이라 불릴 정도로 경관이 빼어나다. 그러나 내원사 계곡이 생태의 상



소금강이라 부를 정도로 경치가 빼어난 내원사 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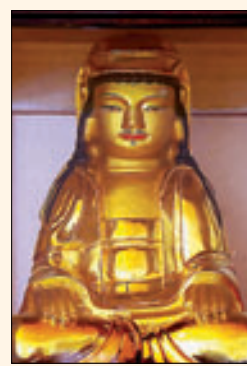
1959년에 낙성된 선원인 '선해일륜(禪海一輪)'.

징으로 떠오른 이유는 정작 아름다운 풍광 때문이 아니다. 내원사 산감으로 천성산 지킴이를 자처한 지을 스님의 기나긴 단식투쟁 때문이었다. 천성산을 관통하는 KTX 터널 공사에 반대하며 2003년 3월부터 스님은 고행을 시작했다.

내원사 계곡 곳곳에서 쉽게 발견되는 도룡뇽은 지을 스님과 함께 고속철도 천성산구간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의 상징적 원고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스님의 목숨을 내건 단식에도 불구하고 천성산 허리춤에는 구멍이 뚫리고 말았다. 내원사 계곡물은 그러한 아픔에도 소리 없이 마냥 흐르고 있다. 산사에서의 시간은 느릿느릿하게 흘러갔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초록이 지천이라 몸도 마음도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잔잔한 계곡물에 발을 담가보면 속세의 찌든 번뇌는 이내 흠뻑 날아간다. 도시의 번잡함과 갑갑한 일상의 짐을 털어내기 위해 내원사는 그저 감사한 공간이었다.

글=김주일 기자 · 사진=하성미 기자

성보문화재



▲석조보살좌상(문화재 자료 제342호·사건) 불상은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양손을 무릎 위에 각각 가지런히 두고 정면을 향해 가부좌한 보살상이다. 머리에는 두건(頭巾)을 쓰고 있으며, 어깨 뒤와 등 부분을 1/3정도 덮고 있다. 결가부좌를

한 보살상으로 소장처에서는 법기보살이라 부르고 있으며 법기보살은 화엄경 보살주처품에 나오는 보살이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금강산 일대에서 법기보살들이 다수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불상은 상호·조각수법 및 착의법 등 전체적인 수법으로 보아 조선후기에 조성된 것이다.

▲아미타삼존탱(유형 문화재 406호) 세로 215.5cm, 가로 288.0cm의 비교적 큰 화폭에 아미타·관음 및 대세지보살상 3존 모두 입상형을 취한 도상이다. 화기에 의하면 조선시대 함평(咸豐)7년(1857)에 조성됐다고 한다. 아미타삼존상은

보편적인 도상이라 할 수 있으나, 삼존 모두 입상형식은 조선 후기 패불탱에 보이는 도량 강림현상의 입상불 외에 주로 고려 후기~조선 전기에 조성된 아미타 내영 형식의 불화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전각 안에 봉안된 정면향 좌상형식의 후불 탱에 비해 사례가 적은 입상 형식의 삼존도이다. 조선 후기 아미타 불화 연구에 가치가 높다.

▲청동금고(보물 제 1734호) 불구(佛具)는 사찰의 행사 때 사용되는 모든 도구를 말한다. 금고는 이러한 불구 가운데 범종·운판·목어 등과 함께 소리를 내는 것으로 정묘양을

하고 있고 반자라고도 부른다. 양쪽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쇠북은 뜻에서 금고라 부르고, 한쪽 면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반자라고 하였는데, 후대에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내원사의 것은 한쪽 면만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것으로, 가운데 부분에 2중선을 돌려 안과 밖을 구분하였다. 안쪽 원에는 6개의 잎을 가진 꽃을 새겼고, 바깥쪽 원에는 4곳에 구름과 꽃무늬를 새겼다. 옆면 위쪽에는 동그란 구멍을 가진 돌출된 귀를 달았고, 아래에는 고려 선종 8년(1091)에 금인사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려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이 금고는 만들어진 시기가 분명하고 상태도 양호한 편으로, 고려

전기 금속공예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내원사 계곡(경상남도 기념물 제 81호) 용연천 내원사 계곡은 영남알프스의 남쪽 주봉인 천성산에서 발원한 계류가 북쪽으로 흐르며 만들어 놓은 계곡이다. 내원사 위쪽에서 내원사 입구까지의 약 6km가 아주 아름다운 절경이어서 경남의 소금강이란 말을 듣는 곳이다. 계곡 곳곳에는 작은 폭포와 소 그리고 삼층바위가 첩첩히 서 있으며 절벽에 "소금강"이란 글자가 뚜렷이 새겨져 있으며 병풍모양으로 바위가 길게 뻗어 있어 병풍바위라 불리는 것도 있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는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흥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지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 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날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에 물목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가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 19,000원 | 여시아문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탈의 돈법

삼계를 벗어나는 최상의 해탈법

담허대사의 염불론과 정혜쌍수(定慧雙修)

담허대사 저 · 송상섭 편역 | 신국판 | 부분컬러 | 232쪽 | 12,000원 | 여시아문
전국(인터넷)서점에서 판매 중. 출판 및 구입 문의: (02)2632-8739

중국의 고승 담허(曇虛, 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원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 옛 중興(中興) 오종(五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맥을 하나로 모은 법문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왕생극락하여 해탈하게 되었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시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두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아미타불 48대원

- 무량수경 · 아미타경과 정법개술 -

아미타불 48대원
- 무량수경 아미타경과 정법개술

연관스님 · 보정가사 번역 | 49배판 | 부분컬러 | 250쪽 | 10,000원 | 비움과소통

곧바로 불퇴전지에 올라 성불하는 묘법!

이 책은 '무량수경, 상권의 아미타부처님의 48대원을 사술한 한문과 번역본 및 해설, 보정가사 박사가 신스크립터로 옮긴 '아미타경, 한문 원문과 번역본,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법을 개술한 대만 병문거사의 정법개술(淨法開述), 번역문으로 이뤄져 있다. '정법개술'은 실상사 최엄학림 화강을 역임한 연관스님이 번역한 염불수행의 중요한 지침서이다.

염불이 살아야 불교가 살아납니다!

비움과소통은 정토를 발행해 통해 아미타부처님의 대원(大願)을 일깨우겠습니다.

나우아미타불

도서출판 비움과소통
비움과소통은 여시아문의 지매 브랜드입니다.

불교소핑몰 비움과소통몰(www.bns-mall.co.kr)
불사전문 책방 비움과소통(02-2632-8739)